커뮤니티를 향한 나눔지
News Letter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
연락처: 646-450-8603
www.kace.org

<제 90 호> 2026 년 11 월 10 일

제 9 회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 심포지엄을 마치며 — 협력교회에 드리는 감사와 연대의 편지

"내몰림의 시대, 희망을 세우는 한인이민교회, 희망은 낙관주의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자매교회와 협력 교회 여러분께,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11 월 5 일(목), 뉴욕우리교회에서 열린 제 9 회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 심포지엄 "내몰림의 시대, 희망을 세우는 한인이민교회"를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헌신 속에 뜻깊게 마쳤습니다.

먼저 지난 9 년 동안 이민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이민자보호교회 운동에 함께해 주신 모든 협력교회와 목회자님들, 성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단순히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민자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어디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어떻게 그 희망을 세워갈 것인지 함께 묻고 답을 찾아가는 자리였습니다.

1. 절망의 시대에 다시 묻는 희망

지난 8 월, 올해 심포지엄의 주제를 '희망'으로 정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민자들이 거리와 직장에서 체포되고, 가족들이 언제 헤어질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아가며, 오랫동안 미국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어 온 이웃들마저 추방의 두려움에 놓인 현실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나 11 월 3 일 중간선거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참여와 행동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때 변화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 열린 심포지엄에서 우리는 그 희망의 의미를 신앙의 관점에서 더욱 깊이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2. "희망은 낙관주의가 아니다. 희망은 행동이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강사로 함께해 주신 뉴욕 리버사이드교회(The Riverside Church)의 에드리언 쏜(Rev. Adriene Thorne) 담임목사님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리버사이드교회는 마틴 루서 킹 목사님이 정의와 평화, 인권을 외쳤던 미국 민권운동의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첫 흑인 여성 담임목사이신 쏜 목사님은 오늘날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소명과 피난처 신학의 의미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특히 다음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희망은 낙관주의가 아니다. 희망은 행동이다."
희망은 모든 일이 저절로 잘될 것이라고 믿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희망은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용기이며, 두려움에 떠는 이웃의 손을 잡는 연대이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행동하는 실천입니다.

쏜 목사님은 또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피난처는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커뮤니티에도 있어야 하고 우리 스스로가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 지난 9 년 동안 우리가 지켜온 "교회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한 걸음 더 확장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피난처는 단순히 교회 건물이나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두려움에 처한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이민단속으로 가족이 헤어진 이웃을 돌보는 공동체,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하는 이민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하는 사람, 그리고 부당한 현실 앞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는 시민 모두가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그러한 피난처가 되어야 하며, 나아가 우리 한인사회 전체가 서로를 지켜주는 공동체로 성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3. 교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연대

쏜 목사님과의 대화에서는 1980 년대부터 이어져 온 미국 피난처 운동의 역사와 성과, 이민자 보호 활동에 따르는 법률적 위험과 신앙적 책임, 흑인 민권운동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그리고 이민자 공동체와의 연대 방안 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진 패널 토론은 김대호 목사님의 사회로 조원태 이민자보호교회 뉴욕위원장,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박동규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패널들은 내몰림의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희망, ICE 단속 현장에서의 대응, 신속대응팀(Rapid Response Team)의 활동, 이민자 보호에 따르는 법률적 문제, 시민사회의 역할과 교회 간 협력 등 현실적이고 중요한 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특히 이민자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는 일은 헌법과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일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되새겼습니다.

이민자 보호는 목회자나 변호사 몇 사람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와 법률가,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서로 연결되고 함께 행동할 때 이민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속적인 힘이 만들어집니다.

4. 목회자 50 명의 목소리가 보여준 우리의 과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가 실시한 목회자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뉴욕시립대학교(CUNY)의 이은정 교수가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이번 조사의 결과는 강창훈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50 명의 목회자가 참여한 조사에서는 이민자 문제에 대한 교회들의 높은 관심이 확인되는 동시에, 그 관심을 실제적인 보호 활동으로 연결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와 교육, 인력과 조직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를 남깁니다.

이민자 보호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 교회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위기 상황에 대비하며, 필요할 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는 이러한 과제를 바탕으로 협력교회들과 함께 이민법 및 권리 교육, 법률지원 연계, 긴급 대응체계 구축, 지역사회 협력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5. 협력교회 여러분께 드리는 실천의 초청

사랑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 여러분,
이번 심포지엄에서 받은 감동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행동으로, 우리의 환대가 연대로, 우리의 믿음이 이웃을 지키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협력교회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실천을 제안합니다.

첫째, 교회를 이민자들이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민 신분이나 처지와 관계없이 모든 이웃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둘째, 이민자 권리 교육과 정보 제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이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단속이나 체포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긴급 대응과 법률지원 네트워크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민단속과 가족 분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회와 지역사회가 신속하게 협력하고, 필요한 법률적·인도적 지원을 연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넷째, 이민자들과 함께하는 연대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민자를 단순히 도움을 받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 그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공동체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다섯째, 교회 간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해주십시오.
한 교회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여러 교회가 함께하면 가능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6.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위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에드리언 쏜 목사님, 사회와 패널 토론에 참여해 주신 김대호 목사님, 조원태 목사님, 김동찬 대표님, 박동규 변호사님, 목회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신 강창훈 목사님과 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이은정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축사를 전해주신 김상호 뉴욕총영사님과 이명석 한인회장님, 한국에서 방문 중 함께해 주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호창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직접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신 뉴욕주 하원의원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과 뉴욕시의원 줄리 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장소를 제공하고 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뉴욕우리교회, 심포지엄 준비위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협력교회와 성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 이제 우리 모두가 서로의 피난처가 됩시다

2017 년 시작된 이민자보호교회 운동은 이제 아홉 번째 심포지엄을 마쳤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걸어온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기 위해 함께해 온 교회들과 이웃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한 가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곁에 서줄 수는 있습니다.
부당한 현실 앞에서 침묵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희망입니다.

에드리언 쏜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희망은 낙관주의가 아니다. 희망은 행동이다."

이제 심포지엄에서 나눈 말씀을 각 교회의 삶과 사역으로 옮겨갑시다.
두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다가가고, 서로의 손을 잡으며,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희망을 만들어갑시다.

교회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서로의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KASCN)
뉴욕위원장 조원태 목사
뉴저지위원장 이준규 목사

뉴욕: (718) 309-6980
뉴저지: (917) 348-4456
이메일: sanctuarychurchny@gmail.com
웹사이트: www.kascn.org

9/14


제9회 이보교 심포지엄
내몰림의 시대,
희망을 세우는
한인이민교회
2026년 11월 5일(목)
오후 6시 50분
뉴욕우리교회
53-71 72nd Pl, Maspeth NY 11378
이민자보호교회
Sanctuary Church
SYMPOSIUM SCHEDULE
6:00 PM | 저녁식사
7:00 PM | 주강사 Rev. Adriene Thorne
7:35 PM | 환영 및 축사
8:00 PM |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
9:00 PM | 닫는기도
Rev. Adriene Thorne
(The Riverside Church)
협력단체 뉴욕가정상담소 ·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 뉴욕지구한인목사회 · 뉴욕한인회 ·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 뉴욕한인봉사센터 · 민권센터 · 퀸즈 YWCA · 시민참여센터 · KCMB-TV · UMC 뉴욕연회 한인코커스 · 뉴욕지역한인회연합회 · 한인단체장연합회 · 뉴욕청소년센터 · 뉴욕 연회 한인여선교회연합회 · 뉴저지한인목사회 ·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 함께하는 교육 · 한인 커뮤니티 센터 · 한중미커뮤니티센터 · 이민자보호 한인커뮤니티 네트워크 (이한넷)

커뮤니티를 향한 나눔지

News Letter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이민자보호교회 Sanctuary Church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

KACE 시민참여센터 www.kace.org

연락처: 646-450-8603

10/14





커뮤니티를 향한 나눔지

News Letter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이민자보호교회 Sanctuary Church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

KACE 시민참여센터 www.kace.org

연락처: 646-450-8603

11/14





커뮤니티를 향한 나눔지

News Letter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이민자보호교회 Sanctuary Church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

KACE 시민참여센터 www.kace.org

연락처: 646-450-8603

12/14






EXIT
이민자보호교회
Sanctuary Church
떻게 하면 좋을까요?
youngs.choi


이보교 사역의 역사적 전개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Ministry
1980
성소 운동 시작
Sanctuary Movement Begins
2017
공식 출범
Official Launch
2025
한인단체 통합 네트워크
Integrated Network
youngs.choi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KASCN)